광주시, 亞추진단 '갬코 경고' 외면했다

작년 기술력·장비가격 우려 담긴 보고서 전달
市 사업강행 논란…공식 문건 여부놓고 이견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지난해 광주시의 3D 컨버팅(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는 내용의 전문가 자문보고서를 광주시에 전달했지만, 시는 이를 외면한 채 사업을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지난해 작성한 '광주시 한미합작법인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인을 통해 문의한 결과 K2그룹(현 갬코의 미국측 파트너 K2AM)이 장비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다"며 "합작법인에 많은 장비를 비싸게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미국 측에서 제시하는 장비가격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행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미국에서 수주하는 가격과 한국에 하도급을 주는 가격 간의 차이를 없애도록 가격 간의 차이를 없애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또 "K2그룹이 할리우드에서 컨버팅 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사업추진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K2그룹이 만약 콘텐츠 지적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채 향후 마케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돼 있다.

갬코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워크스테이션)의 기술력과 가격 적정성, 사업물량 확보 등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에도 갬코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해 총 650만 달러를 K2그룹 측에 송금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문건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만일 문화부의 공식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사업을 강행했다면 또다른 파장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측은 내부 보고 문건일뿐, 광주시에 지시한 문화부의 공식 서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병훈 전 추진단장은 "강운태 광주시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문 부탁을 받은 뒤 직원들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작성한 내부 보고서"라며 "광주시장에게 전달한 것도 10가지 우려사항을 담은 전자메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 "장비구입과 운영은 전적으로 지자체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지, 문화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문화부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광주시에 전달했다면 이는 월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운태 시장의 개인 이메일로 받은 문건이 자문보고서와 함께 외부에 유출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 시장이 당시 이 단장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검토 차원에서 실무자에게 전달한 것이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점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희망나무, 마닐라 재해지역 돕는다

오늘부터 광주 의료진들과 긴급구호 지원 나서
다문화 가정 파스콰레니엄씨도 동행 친정 방문

다문화가정 지원 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대표 류한호)는 오는 2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광주 의료진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재해지역으로 긴급구호 의료지원을 떠난다.

이번 긴급구호 봉사에는 한국으로 시집와 5년 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파스콰레니엄씨(여·41)와 그의 큰아들이 동행한다.

(사)희망나무는 이번 필리핀 홍수로 피해로 인해 파스콰레니엄씨의 친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받고 긴급구호팀을 결성했다.

의료진은 (사)희망나무를 포함한 아이안과, 광주병원 내과를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현지 의료 진료와 함께 의약품·옷·칫솔·치약·생수 등 구호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희망나무 류한호 이사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파스콰레니엄씨의 친정댁을 포함한 마을을 돕고 의료서비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뜻깊고 의미있는 봉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사)희망나무는 소외된 이웃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로 이주여성을 위한 '친정집 방문 및 의료봉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순신대교 철탑 이설비용 법정 공방

전남도 "전선삽입 비용 허가 받은 한전이 부담"
한전 "임시개통 이유 철탑 가이설 전남도 책임"

여수~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 건립을 위해 잠시 옮겨진 철탑을 다시 이설하는 비용 8억4400만원을 누가 내느냐를 놓고 전남도와 한국전력공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3일 전남도는 "지난 6월14일 한전이 이순신대교 인근 철탑 이설 공사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정현)는 이날 오후 첫 재판을 갖고 양 기관의 입장을 들었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 2006년 지난 12일 폐막한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여수와 광양 사이의 묘도를 잇는 이순신대교를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전남도와 한전은 당시 공사를 위해 묘도에 설치된 철탑을 인근으로 가이설하는 것에 합의한 뒤 이 공사비용 21억원을 전남도가 부담했다.

그러나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임시개통됐던 이순신대교의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이들 기관의 입장이 엇갈렸다. 애초 가이설된 철탑을 다시 옮겨오는 대신 전선을 이순신 대교 교각에 삽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사비 부담을 누가해야 할 지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도로법상 도로 구역 내 공사비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한전)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이 전선 이설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철탑의 가이설은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불가피했기 때문에 전남도가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순신대교에 설치하는 전선 삽입은 한전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전은 "전기사업법상 이설을 요구하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순신대교 임시개통이라는 전남도의 필요에 따라 철탑을 가이설했기 때문에 전선 삽입의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소송으로 철탑의 전선 삽입 공사는 늦어지고 있지만 기존 가이설 철탑이 있어 묘도 일대의 전력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남도와 한전의 주장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檢, 김병술 대표 소환조사
GCIC 관계자 잇따라 소환

검찰이 23일 오전 광주시의 한미합작투자사업과 관련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김병술 대표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조사한 뒤 오후 늦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미합작투자사업을 진두지휘한 김 대표를 상대로 감사원이 지적한 사업 추진 배경과 72억원(미화 650만 달러) 송금 과정 등에 대한 의문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미국 LA기술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며 검찰은 검토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에 이어 사업에 관여한 GCIC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가 시작단계로 가까운(국내) 사람들부터 부른 뒤 미국 업체 관계자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된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섬진강 자전거길 달려보세요"

오는 2015년까지 전북 임실 섬진강댐에서 시작해 광양 배알도 해수욕장까지 이르는 총 154㎞의 섬진강~영산강을 연결하는 섬진강 자전거길이 조성된다. 또 올 4월 개통된 영산강 자전거 길과도 연결해 총연장 313km에 달하는 횡단 종주노선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은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에서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 계획 구간. 〈전남도 제공〉

전발연 "전남도 對 중국 교류 관광상품 개발해야"

전남지역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원 김현철 책임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연구논문 '한·중 수교 20주년, 전남의 대중국교류 성찰과 과제'를 통해 "전남은 대중국 교류에 있어 농업·제조업 등 1·2차 산업에서의 열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해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의 대중국 수출현황은 전체 수출규모 대비 미미한 실정이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액은 무려 116억7200만 달러(1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남이 보유한 섬 자원을 기반으로 통합의학 휴양시설, 카지노, 면세점을 포함한 복합관광타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

나로호 1단 로켓 한국이송 시작

한국의 우주발사체 나로호에 쓰일 러시아제 1단 로켓의 한국 이송이 시작됐다고 로켓 제작사 흐루니체프 우주센터가 22일(현지시각)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보브레네프 흐루니체프 대변인은 이날 밤부터 1단 로켓의 수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단 로켓은 앞서 20일 모스크바에서 열차 컨테이너에 적재됐고 며칠 내에 남부도시 울리야노프스크로 이송된 뒤 그곳에서 한국 부산까지 항공편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그 뒤 다시 배로 나로호 발사기지로 옮겨진다.

2004년 체결된 한국과 러시아 양측 간 계약에 따라 나로호의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2단 로켓과 탑재 위성은 한국에서 각각 제작됐다.

나로호 발사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시도됐으나 실패했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3차 발사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올 전남 해변 이용객 600만명 역대 최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올 여름 해수욕장 등 전남 해변 이용객이 역대 최고치인 6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3일 "지난 18일까지 전남 해변 누적 이용객은 총 597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2010년 594만명)을 넘어선 수치다"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 전남 해변 이용객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효과와 이른 무더위로 7월부터 피서객이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광록기자 kroh@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31(금)
-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 A반, B반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A 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 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 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함평다이너스티CC
신입 및 경력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주방보조 0명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3.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주방보조 月 120만원

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 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7.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식음료팀 이상욱 팀장 (전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8@hanmail.net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2373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383	주식회사 삼한통합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392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7월 6일

판 사 이 탄 희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1666	유한회사 대형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674	주식회사 남선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17	주식회사 금강기업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26	유한회사 대형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34	유한회사 대형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42	유한회사 유맥트랜스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62	아시아나 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70	유한회사 광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79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85	유한회사 동양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794	유한회사 대형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03	주식회사 남선화물 (변경전: 남선화물자동차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16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24	유한회사 유맥트랜스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32	유한회사 유맥트랜스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40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48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57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867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903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912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920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928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937	주식회사 삼한통합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947	유한회사 모든특수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1968	주식회사 삼한통합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978	주식회사 해미상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1983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1991	유한회사 대형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000	유한회사 유맥트랜스	도로법위반
2012고단 2010	유한회사 유맥트랜스	도로법위반
2012고단 2071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077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084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090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097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104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112	삼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121	유한회사 삼오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183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191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198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205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213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222	주식회사 삼한통합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230	주식회사 연안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237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7월 9일

판 사 정 한 근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2462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469	유한회사 영산포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476	주식회사 천진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485	주식회사 금성중기특수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526	유한회사 광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534	주식회사 한중	도로법위반
2012고단 2542	유한회사 대형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553	유한회사 유맥트랜스	도로법위반
2012고단 2560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570	유한회사 영산포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676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683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692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01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08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15	주식회사 삼한통합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22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31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53	유한회사 동양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62	주식회사 금성중기특수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69	유한회사 영산포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76	유한회사 영산포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83	주식회사 천진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92	유한회사 동양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801	유한회사 동양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817	영진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825	삼양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833	유한회사 광미운송	도로법위반
2012고단 2843	유한회사 하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2853	유한회사 영명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861	유한회사 하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2869	유한회사 하남통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2877	유한회사 영명물류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7월 11일

판 사 김 종 석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2185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215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224	유한회사 삼오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318	주식회사 천진운수(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공단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328	유한회사 동양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362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374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2384	유한회사 삼오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402	세광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482	유한회사 동양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490	유한회사 동양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567	유한회사 영산포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603	주식회사 대신종합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617	유한회사 삼남통운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7월 12일

판 사 신 현 범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2고단 2757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65	경상운수 합명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2772	유한회사 영산포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2년 7월 24일

판 사 정 한 근